

# 新興工業國의 開發戰略과 韓國經濟

朴 振 根\*

目 次

- I. 新興工業國의 범위
- II. 新興工業國의 開發戰略
- III. 新興工業國의 當面課題와 問題點
- IV. 新興工業國으로서의 韓國經濟

## I. 新興工業國의 범위

「新興工業國」(Newly Industrialising Countries: NICs)이란 표현은 최근 OECD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바 있다. (1)

OECD보고서에 의하면 新興工業國이란 開發途上國들 중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工業製品의 생산과 수출면에서 급속한 증가율을 시현함으로써 全世界의 工產品生産과 工產品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급속히 증가한 국가인 것이며, 이에 따라 製造業部門의 就業率 및 1人當 實質GDP의 증가율이 先進工業國(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AICs) 수준을 상대적으로 능가하는 국가인 것이다.

이와 같은 基準에 따라 OECD보고서는 西歐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및 유고슬라비아, 南美의 브라질과 멕시코, 아시아의 홍콩, 한국, 대만 및 싱가포르 등 10個國을 新興工業國群으로 分類하고 있다.

〈表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新興工業國들의 製造業生産이 全世界의 製造業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63년의 5.4%로부터 1977년의 9.28%로 증대되어 餘他開發途國들의 比重이 같은 기간 중 8.98%로부터 9.8%로 정제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日本을 제외한 모든 先進國들의 比重은 同期間 중 오히려 감소되는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10個 新興工業國들의 工產品輸出이 全世界의 工產品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表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3년의 2.59%로부터 1976년의 7.12%로 크게 증대되었다.

\* 延世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OECD, *The Impact of the Newly Industrialising Countries on Production and Trade in Manufactures*, Paris, 1979.

〈表 1〉 全世界의 製造業生産分布

(%)

		1 9 6 3	1 9 7 0	1 9 7 3	1 9 7 7
美	國	40.25	36.90	36.59	36.90
日	本	5.48	9.28	9.74	9.14
독	일	9.69	9.84	9.19	8.85
프	랑	6.30	6.30	6.25	6.15
英	國	6.46	5.26	4.78	4.16
이	탈	3.44	3.49	3.29	3.33
캐	나	3.01	3.01	3.08	3.08
其 他 先 進 國		10.99	9.72	9.83	9.29
스	페	0.88	1.18	1.37	1.56
포	르	0.23	0.27	0.30	0.32
그	리	0.19	0.25	0.30	0.33
유	고	1.14	1.25	1.31	1.62
브	라	1.57	1.73	2.10	—
멕	시	1.04	1.27	1.30	1.45
홍		0.08	0.15	0.18	—
韓	國	0.11	0.22	0.32	0.69
대		0.11	0.23	0.34	0.46
싱	가	0.05	0.06	0.08	0.10
(小	計)	(5.40)	(6.61)	(7.60)	(9.28)
其 他 開 途 國		8.98	9.59	9.65	9.80
全 世 界		100.0	100.0	100.0	100.0

資料 : OECD보고서(1979)에서 再引用.

반면 餘他開途國들의 比重은 同期間 중 2.7%로부터 1.55%로 감소되었으며 OECD全會員國의 比重은 80%線에서 安定勢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OECD事務局의 10個 新興工業國概念이 客觀性 면에서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이는 특히 이들 10個國이 國土의 面積, 人口密度, 賦存資源, 경제발전의 정도 및 소득수준 등 諸側面에서 상당한 異質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OECD事務局의 新興工業國概念과 매우 類似한 소위 中進國概念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UNCTAD보고서가 제시한 高速工產品輸出國(Fast-growing Exporters of Manufactures: 홍콩, 이스라엘, 韓國, 레바논, 말타, 멕시코, 싱가포르 등 7개국)개념과 日本 通商産業省의 『通商白書』가 제시한 中進工業國(韓國, 대만,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등 6개국)개념은 新興工業國概念과 실질적으로 同一한 개념인 것이다.<sup>(2)</sup> 이들 두 개념들이

(2) UNCTAD, *Review of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1975.

日本通商産業省, 『通商白書』, 1977.

〈表 2〉 全世界의 工業品輸出分布 (%)

	1963	1973	1976
캐 나 다	2.61	4.16	3.32
美 國	17.24	12.58	13.55
日 本	5.98	9.92	11.38
프 랑 스	6.99	7.26	7.41
독 일	15.53	16.98	15.81
이 탈 리 아	4.73	5.30	5.49
英 國	11.14	7.00	6.59
其 他 OECD	15.65	17.63	17.71
(OECD 小 計)	(80.49)	(82.25)	(82.76)
스 페 인	0.28	0.92	1.07
포 르 투 갈	0.30	0.35	0.21
그 리 스	0.04	0.15	0.22
유 고 슬 라 비 아	0.40	0.55	0.60
브 라 질	0.05	0.35	0.41
멕시코	0.17	0.64	0.51
홍 콩	0.76	1.05	1.15
韓 國	0.05	0.78	1.20
대 만	0.16	1.04	1.23
싱 가 포 르	0.38	0.46	0.52
(小 計)	(2.59)	(6.29)	(7.12)
其 他 開 途 國	2.70	2.34	1.55
東 歐 圈	13.35	10.00	9.65
全 世 界	100.0	100.0	100.0

資料 : OECD보고서(1979)에서 再引用.

갖는 共通의인 특징은 높은 工業品生産比重과 輸出比重 및 이들의 높은 증가율인 것이다.

UNCTAD의 高速工業品輸出國의 기준(1975년 기준)은 工業品輸出 5千萬달러 이상, 工業品輸出이 輸出總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3 이상, 年間 輸出增加率 16%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日本의 中進工業國의 기준(1979년 기준)은 工業製品的 年間 수출액 10억달러 이상, GNP 중 工業生産의 比重 25% 이상으로 되어있다.

## II. 新興工業國의 開發戰略

### 1. 概 觀

新興工業國群의 경제개발전략을 구체적으로 구명한다는 것은 결코 容易한 課題는 아니

다. 특히 戰略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定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들 新興工業國들이 그동안 채택하여온 多樣的 각종 경제정책들 중에서 어디까지가 이들 국가의 特異한 發展戰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提起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들 국가의 發展戰略과 發展戰略을 有效하게 하는 데 기여한 諸般與件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경제발전의 諸要因」과 「경제발전전략」이 반드시 同一한 내용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략규정상의 制約性을 고려할 때 新興工業國들의 경제개발전략을 한마디로 集約한다면 소위 對外指向的 發展戰略(outward-looking development strategy)인 것이며<sup>(3)</sup> 이와 같은 新興工業國들의 發展戰略은 다시 貿易主導型 發展戰略(foreign trade-led development strategy) 또는 輸出主導型 發展戰略(export-led development strategy)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경제발전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는 國別로 相異한 要因들이 작용하였지만 가장 共通的인 내용으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① 低廉한 良質의 勞動力.
- ② 活動的인 企業家群.
- ③ 社會的인 安定.

사실상 世界銀行이 區分한 中所得國(Middle Income Country)은 1978년도에 56個國으로 나타나 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극히 一部分이 新興工業國으로 지칭되고 있는 것은 이들 국가의 발전전략이 殘餘開發途上國들의 발전전략보다 월등히 우월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들 국가의 諸般與件이 餘他開發途上國들보다 有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OECD의 分類基準에 따른 10個 新興工業國은 西歐型 新興工業國(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및 유고슬라비아), 아시아型 新興工業國(韓國,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 및 中南美型 新興工業國(브라질 및 멕시코) 등 3個 그룹으로 分類될 수 있다.

이와 같은 分類는 단순히 地域的인 分類인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經濟構造 등 諸側面에서 그룹별로 다음과 같은 共通點들을 갖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sup>(5)</sup>

소위 西歐型 新興工業國들은 <表 3>에서와 같이 都市中心의 小規模國(홍콩 및 싱가포르 등)과 產油國을 제외하면 開發途上國들 중 가장 높은 1人當 GNP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스페인은 1976년에 이미 先進國水準인 3千달러線에 도달한 바 있다. 또한 이들

(3) OECD, *The Impact of the Newly Industrialising Countries*, Paris, 1979, Section IV.

(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78.

(5) 日本通商産業省, 『經濟協力の現狀と問題點』, 1979, 第2章.

국가의 경우 醫師 1人當 人口數 및 就學率 등의 복지후생수준은 先進國水準에 육박하고 있고, 農業人口의 比重 등 產業構造面에서는 質的으로 先進國들보다 落後되어 있어 기본적으로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의 중간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시아型 新興工業國들의 주요특징은 低廉한 良質의 勞動力을 활용하는 加工貿易과 주로 美國 및 日本市場을 상대로 한 輸出指向的 工業化를 추진한 것으로서 오늘날 가장 典型的인 新興工業國으로서 지칭되고 있다.

특히 이들 아시아型 新興工業國들은 市場메카니즘을 활용하면서 換率의 調整 및 金利政策 등을 통해 강력한 수출추진을 시도한 결과 1970년~1977년의 기간 중 이들 국가의 년평균 수출증가율은 開發途上國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韓國 30.7%, 대만 16.7%, 싱가포르 9.8%, 홍콩 6.5%).

이들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人的資源에 依存하는 輸出指向型 開發戰略은 과거 日本의 開發過程과 매우 類似한 것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현재 餘他 아시아開發途上國들도 이와 같은 개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이들 아시아의 新興工業國들의 경우 低廉한 勞動力에 의존하는 產業部門에서는 賃金上昇에 따라 競爭力을 상실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機械工業의 육성 등 소위 產業의 重化學工業化를 試圖하고 있다.

한편 中南美型 新興工業國들은 國內資源을 활용한 輸入代替型 工業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이 중요한 特徵으로 나타나 있다.

브라질의 경우 國內産業保護政策에 따라 輕工業製品에 대한 輸入關稅 등을 통해 市場을 강력히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輸入代替型 工業開發은 점차 限界에 이르러 현재는 輸出促進政策으로 전환되고 있다.

中南美型 新興工業國들의 경제개발상의 또 하나의 特徵은 外國資本의 도입규모가 매우 커 1977년의 경우 브라질과 멕시코의 外資導入規模는 全開發途上國 중에서 각기 1位와 2位를 차지한 바 있으며, 이들 外國資本, 특히 美國資本과 기술이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에 기여한 정도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고찰된 바와 같이 新興工業國의 형태는 多樣하나 地域的으로 상당한 共通性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적극적인 工業化政策을 추진하여 社會的 安定을 도모하면서 앞서 지적된 각종 對外指向的 정책수단들을 總合的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은 모든 新興工業國의 공통된 特徵인 것이다.

OECD보고서가 지적한 10個 新興工業國들의 對外指向的 發展戰略은 國別로 이와 같은 발

진전락을 본격적으로 채택한 時期와 각종 구체적 정책수단의 결합내용과 지원의 정도 등에서 상당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10個國들 중에서도 韓國과 대만은 對外指向의 경제발전이라는 면에서 最先頭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브라질과 멕시코는 餘他新興工業國들보다도 더욱 對內指向의 경제기반으로부터 對外指向의 發展戰略으로 轉換함으로써 對外指向의 發展이라는 면에서 韓國 및 대만보다는 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開放」경제상태하에 있었기 때문에 餘他新興工業國들에 비하면 對外指向의 인 노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西歐의 新興工業國들은 對外指向의 政策으로의 轉換이 餘他國들에 비해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는 과연 이 국가가 對外指向의 發展戰略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조차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西歐의 新興工業國들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西歐의 主要先進國市場에 近接되어 있다는 점과 이들 西歐의 先進國들이 제공하고 있는 特別措置(예컨대, GSP) 및 이들 先進國들로의 要素(노동)의 流出 등이 수출증대를 위한 강력한 支援政策의 필요성을 餘他新興工業國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OECD보고서가 지적한 10個國 중 아시아 및 中南美의 6個國들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對外指向의 政策內容의 주요특징을 좀더 具體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sup>11)</sup>

## 2. 對外指向의 開發戰略의 主要特徵

新興工業國들의 對外指向의 開發戰略은 다시 다음과 같은 政策內容으로 特徵지을 수 있다:

- ① 工業部門에 대한 우선적 資源配分政策.
- ② 輸出用原資材輸入의 自由化政策.
- ③ 外國資本 및 技術導入의 積極化政策.
- ④ 輸出品生産, 輸出品의 對外競爭力增大 및 家計部門의 輸入性向減少를 위한 金融 및 財政面에서의 誘因提供과 需要管理政策.
- ⑤ 競爭的인 換率水準의 維持政策.

新興工業國,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및 中南美의 6個 新興工業國들의 工業化優先政策의 效果는 이들 諸國의 產業構造推移에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즉 <表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韓國과 대만의 2次産業比重은 1976년에 각기 34% 및 45%에 이르고 있으며(1950년~1952년 기간 중엔 각기 13% 및 22%이었음) 餘他新興工業國들도 35%~40%線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新興工業國들의 工業化推移는 급속한 「工業

〈表 3〉 主要新興工業國들의 構造的 特徵(1976)

	人口密度 (名/km <sup>2</sup> )	1人當 GNP (US\$)	GDP의 구성(%)			貿易 依存度	工業產品의 輸出比重 (1975)	工業化率 = $\frac{\text{工業生産(ISIC 2-4)}}{\text{GDP}} \times 100$		
			1次産業	2次産業	3次産業			1960	1970	1976
韓國	363	670	27	34	39	68	82	17	25	33
대만	452	1,070	12	45	43	90	85	25	34	38
홍콩	4,500	2,110	2	34	64	183	97	—	—	—
싱가포르	2,300	2,700	2	35	63	252	43	14	23	27
멕시코	31	1,090	10	35	55	14	52	19	24	33
브라질	12	1,140	8	39	53	19	27	25	29	30

資料 : OECD보고서, 1979, p.47 및 日本의 『通商白書』(總論), 1979, p.89.

化率」의 증가추세에 의해 더욱 特徵的으로 集約되고 있다. 즉 GDP 중에서 광업, 제조업 및 전력 등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比重은 韓國과 대만의 경우 1960년의 17% 및 25%로부터 1976년의 33% 및 38%로 크게 증대되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는 同期間中 14%로부터 27%로 급속히 증대되었다. 또한 1950년~1952년의 기간 중 2次産業의 生産比重이 각기 35% 및 30%로서 餘他新興工業國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早期에 工業化의 기반을 구축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에 있어서도 工業化率은 1960년의 19% 및 25%로부터 1976년의 33%와 30%로 각기 증대됨에 따라 30% 이상의 工業化率을 이룩하였다.

결국 1976년을 기준으로 할 때 新興工業國들의 工業化率은 30%~40%에 이르고 있는 것이 主要特徵인 것이다.

新興工業國들의 輸出增大를 위한 諸般政策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輸出品生産에 소요되는 각종 原資材輸入의 自由化政策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表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3년~1976년의 기간 중 新興工業國들의 工業製品生産의 年平均 증가율은 멕시코의 7.6%로부터 韓國의 21.3%에 이르고 있으나 同期間 중 原資材輸入의 年平均 증가율 또한 (싱가포르만을 例外로) 멕시코의 6.1%로부터 韓國 및 대만의

〈表 4〉 主要新興工業國들의 工業製品生産과 原資材輸入(1963~1976年平均) (%)

			工業製品生産 (A)	原資材輸入 (B)	B/A
브	라	질	8.8	6.3	0.72
멕	시	코	7.6	6.1	0.80
홍		콩	13.9	7.1	0.51
韓		國	21.3	15.1	0.71
싱	가	포	9.9	2.3	0.23
대		만	16.5	16.0	0.97

資料 : OECD보고서(1979), p.52.

15.1% 및 16%의 범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原資材輸入增加率의 製品生産增加率에 대한 比率는 (싱가포르만을 例外로) 0.5~0.97의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외한 餘他新興工業國들의 경우는 모두 0.7 이상의 比率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比率는 全世界的인 平均比率 0.54를 크게 능가하는 높은 比率인 것이며 新興工業國들의 급속한 工業化와 급속한 수출증대 등이 급속한 輸入의 증대, 특히 資本財와 工業原料 등의 輸入增大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임을 反映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이들 국가가 工業化에 필요한 諸般輸入에 대하여는 政策적으로 自由化를 허용해 온 점을 示唆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新興工業國들이 그들의 工業化政策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온 先進技術 및 外國資本의 導入政策은 이들 국가의 生産능력을 提高시키는 과정에서 전략적 요소로서 작용하여 왔으며 이들 국가는 外資誘致를 위한 각종 優待措置를 제공하여 왔다.

〈表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大部分의 新興工業國들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外資導入法의 制定 등을 통해 본격적인 外資導入態勢를 갖추고 도입되는 外國資本과 技術을 主要戰略産業과 輸出産業 등에 우선적으로 配分하였으며 各種租稅減免, 支拂保證 및 果實送金の 保障 등의 外資誘因策을 시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韓國, 대만, 멕시코 및 브라질 등 4개국의 外債殘額은 1976년말 현재 世界總額 2,200억달러의 30%線인 655억달러에 도달한 바 있다.

新興工業國들의 外資導入政策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인 측면은 先進國企業의 直接投資導入政策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단순한 借入에 비해 先進國企業의 直接投資는 資本뿐만 아니라 生産技術과 특히 經常技術의 效率的인 導入方法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한 先進國企業들에게는 低廉한 良質의 노동력(아시아의 新興工業國)과 풍부한 資源의 加工(中南美의 新興工業國)을 위한 投資機會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新興工業國들의 工業化過程에서 先進國企業의 直接投資는 戰略的 位置를 차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海外直接投資를 가장 많이 導入한 新興工業國은 브라질과 멕시코로서 1976년 이들 국가의 外國人直接投資導入殘額은 각기 90억달러와 47억달러를 능가하는 규모였다. 아시아의 新興工業國들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37억달러(1976년말)로서 가장 많은 海外直接投資를 導入하였고 홍콩과 대만은 20억달러 수준에, 한국은 10억달러 수준에 이른 바 있다. 또한 1973년~1977년(또는 1976년)의 기간 중 이들 국가의 海外直接投資導入의 年平均 증가율은 멕시코의 8.3%를 下限으로 하여 브라질의 25.1%에까지 이



〈表 5〉 主要新興工業國들의 外資導入政策

	支 援 內 容		
	立 法	政 策 方 向	優 待 措 置
韓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資導入法 (66年 8月 制定, 73年 3月 改正)</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際收支改善</li> <li>• 重要産業 또는 公益事業의 發展에 기여하는 産業에 우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人稅・財産稅・所得稅의 5年間 免除 및 그 以後 3年間은 50/100 輕減</li> <li>• 利益配當金 및 잉여금에 대한 所得稅・法人稅의 5年間 免除 및 그 以後 3年間은 50/100 輕減</li> <li>• 外國投資家가 도입하는 資本財에 대한 關稅・物品稅의 免除</li> <li>• 支拂保證: 대규모 國家基幹産業에 대해서는 政府가 支拂保證</li> </ul>
臺 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投資獎勵條項 (60年制定, 74年修正)</li> <li>• 外國人投資條例</li> <li>• 加工輸出地區設置管理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國人의 투자를 內國人投資와 同等하게 待遇 내지 優待</li> <li>• 經濟・社會開發에 부합되는 業種・輸出業體에 대한 投資를 獎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人稅(事業所得稅) 5年間 免除; 生産業種 및 新規觀光事業</li> <li>• 輸入稅 免除 및 加速償却制 인정; 基幹産業의 גיע설비</li> <li>• 關稅・物品稅 免除(輸出加工地域業體)</li> <li>• 證券取得稅 및 印紙稅의 免除</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經濟擴大獎勵法 (67年制定, 75年改正)</li> <li>• 創始産業法</li> <li>• 産業擴大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技術 및 資本集約的 産業에 대한 外國人投資 歡迎</li> <li>• 金屬機械・光學機械・船舶機械 등에 대한 投資優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人稅의 10年 免除(創始産業의 경우)</li> <li>• 設備擴張은 最長 5年間 法人稅 免除</li> <li>• 輸出에 의한 利益에 대해 4% 所得稅率 適用 (他稅率은 40%)</li> <li>• 技術集約的 外資企業에 産業用지를 優先配分</li> </ul>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資導入에 대한 公的 規制無</li> </ul>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新憲法(67.1)</li> <li>對外利潤送金法 (62年 9月 制定, 67年 改正)</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人稅 減免(東北브라질・아마존地域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 50~100% 면제)</li> <li>• 個人所得稅의 控除(政府債・資本公開會社의 株式투자에 대해서 30% 공제)</li> <li>• 果實送金の 保障</li> </ul>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直接補助金・稅制特惠</li> </ul>

資料: 國際經濟研究院, 『國際經濟環境의 變化와 우리의 對應』, 1978, p. 22.

르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급속한 속도로 증대된 海外直接投資導入의 대부분이 製造業部門에 우선적으로 配分된 바 있다. 특히 홍콩의 경우는 外國人에 의한 直接投資의 全額이 製造業部門에 投入되고 있다.

製造業部門에 대한 投入에 있어서도 特定業種에 集中되는 傾向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表 6〉 主要新興工業國들의 海外直接投資導入狀況

	海外直接投資 導入殘額 (百萬달러)	1973년 以前の 年平均  증가율 (%)	製造業部門에 대한 投資比率 (%)	外國人投資企業이 製造業의 총 판매액 에서 차지하는比重 (%)	主要投資國 (%)
韓國(1975)	927	15.2	80.1	11(1974)	日本 (66.5) 美國 (17.4)
대만(1977)	1,711	11.7	71.3	—	(華僑) (30.3)
홍콩(1976)	1,952	11.9	100.0	—	美國 (47.2) 日本 (15.4)
싱가포르(1976)	3,739	11.7	59.3	—	美國 (32.9) 英國 (14.8)
브라질(1976)	9,005	25.1	76.5	49(1974)	美國 (32.2) 西獨 (12.4)
멕시코(1976)	4,736	8.3	77.5	27(1972)	美國 (68.7) 英國 (5.6)

資料：日本 通産省, 『通商白書』(總論), 1979, p.97.

예컨대 싱가포르의 경우 石油精製 및 石油製品工業에, 기타 아시아新興工業國들의 경우 電氣, 電子機器 및 化學工業 등에 대한 投入比率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化學, 輸送用機械, 電氣 및 通信機器 등에 집중적으로 配分되고 있다. 이와 같은 産業들은 新興工業國의 重化學工業分野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産業들로서 資本뿐만 아니라 先進生産技術 및 先進經營技術에 대한 依存도가 그만큼 큰 산업들인 것이다.

한편 이들 新興工業國들이 導入하는 外國人直接投資의 대부분은 美國, 日本, 英國, 西獨 등 主要先進國들에 의한 것이며 아시아新興工業國들의 경우는 주로 美國과 日本에, 中南美 新興工業國들의 경우는 주로 美國과 영국 및 西獨 등에 의한 投資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 諸國의 美國, 日本, 英國 및 西獨 등에 대한 直接投資의 依存도가 압도적으로 큰 이유는 이들 先進國들이 갖고 있는 經濟力에도 基因하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要因은 이들 先進國들과의 정치적 및 사회적 近接性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특히 韓國의 경우 日本의 直接投資가 갖는 比重이 66.5%라는 점과 멕시코의 경우 美國의 直接投資比率이 68.7%에 이르고 있는 것에서 더욱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外國人投資企業들이 이들 新興國家의 製造業部門에서의 生産 및 輸出入活動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적어도 10% 이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는 이미 1974년에 49%에, 멕시코의 경우는 1972년에 27%에 각기 이른 바 있다.

新興工業國들이 先進國의 資本, 技術 및 해외판매망 등을 輸出과 直結된 生産활동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輸出自由地域(export processing zone)의 설립과 그에 대한 각종 支援에 의해 더욱 集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輸出品生産 및 加工地域인 輸出自由地域은 유럽의 新興工業國을 제외한 아시아 및 中南

美의 新興工業國들이 모두 설치하여 왔다. 外國人投資家들에 대한 誘因策의 일환으로서 설치된 이들 輸出自由地域은 각종 外部經濟 및 産業用不動產 등 각종 시설면에서의 지원은 물론 關稅 및 稅制上的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自由地域의 설치와 운영은 물론多數의 開發途上國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韓國과 대만의 경우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들 兩國의 경우 輸出自由地域은 이들의 對外指向의 成長의 초기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대만의 경우 輸出自由地域으로부터의 輸出은 1973년의 4억달러로부터 1977년의 7.6억달러로 증대되었으며 同期間 중 輸入은 3억달러로부터 5.1억달러로 증대되었다. 따라서 輸出에 대한 國內要素의 기여분(local value-added)은 1973년의 1억달러로부터 1977년의 2.5억달러로 증대되었으며 생산 및 경영기술면에서의 對內的인 각종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이상과 같은 輸出自由地域의 역할이 갖는 比重은 新興工業國들의 생산 및 수출규모가 전반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며 급속히 국민경제에 統合되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新興工業國들의 輸出增大를 위한 財政·金融面에서의 差別的인 각종 지원책의 내용과 형태는 <表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별로 매우 多樣하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적인 점은 수출품의 생산과 이들의 對外競爭力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이 이들 新興工業國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要因으로 기능하여 왔다는 점이다.

金融面에서의 가장 전형적인 수출지원책은 一般金利水準을 크게 下廻하는 소위 優待金利의 適用, 長短期 延拂輸出支援을 위한 輸出保險制의 실시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財政面에서의 支援은 주로 稅制上的 특혜조치로서 수출기업에 대한 法人稅의 減免, 輸出用原資材와 資本財의 輸入關稅減免(還給) 등이 전형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다.

新興工業國들의 경우 換率政策은 餘他的 어느 巨視的 政策手段 못지 않게 중요한 수출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對外指向의 開發戰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초기단계에서는 自國通貨의 大幅的인 平價切下가 취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平價切下를 效果的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국가는 韓國, 브라질 및 멕시코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表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0년~1978년의 기간 중 美國의 달러貨에 대한 각국 통화가치 면에서 브라질, 멕시코 및 韓國의 통화가치는 각기 75.1%,

(6) OECD보고서, 1979, p. 49. 1977년 현재 輸出自由地域內 企業數는 총 290개로서 이는 外國人 單獨投資企業 87개, 內國人과의 合作投資企業 101개, 內國人 및 海外華僑에 의한 單獨投資企業은 102개로 구성되어 있음.

〈表 7〉 主要新興工業國들의 輸出支援政策

	金 融	租 稅		其 他
		內 國 稅	關 稅	
韓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C金額의 80~90% 용자(延拂輸出은 소요자금의 50~80% 용자)</li> <li>• 金利: 年 8%(延拂輸出은 年 8~8.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營業稅全額 免除(수출업·보세가공업·수출품생산업 등)</li> <li>• 法人稅 減免(해외시장개척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자료에 대한 損金算入)</li> <li>• 特別償却利益(通常償却보다 3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用原資材輸入에 대해 關稅還給, 事前 減免除, 重要産業用 施設에 대한 免稅</li> <li>• 保稅工場에 대한 關稅賦課의 猶豫</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保險制 (損失保險額의 90%를 지급)</li> <li>• 外換管理</li> <li>• 수출업체의 해외支社 外貨保險制</li> <li>• 現地金融擔保</li> <li>• 對外外貨表示支給保證</li> </ul>
臺 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C 金額의 85% 용자</li> <li>• 金利: 年 6.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流失準備資金 및 수출진흥을 위한 연구·개발支出金額을 課稅標準에서 除外</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機器輸入關稅의 分割 納付</li> <li>• 輸入原料에 대한 輸入關稅 事前免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保障制</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어음 低利割引 (年利 4%로 再割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기업은 所得稅 減免(年 4% 적용)</li> <li>• 외국투자업체는 10年間 租稅 免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用原資材의 關稅 還給</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保險制</li> <li>• 補助金支給 (신규시장개척 수출업자)</li> </ul>
홍 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品生産에 대한 間接稅 免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品加工地域의 設置 運用</li> <li>• 海外 마아케팅에 대한 政府의 支援</li> </ul>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共福祉向上을 위한 資本財에 대한 輸入稅 免除</li> <li>• 工業用機器·中古플랜트의 수입세 면제</li> </ul>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용기계설비 輸入에 대해선 75% 면제</li> <li>• 수출용원자재 半加工品輸入의 경우는 50% 選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輸出保險制</li> </ul>

資料: 國際經濟研究院, 『國際經濟環境의 變化와 우리의 對應』, 1978, p. 25.

45.1% 및 35.7%씩 切下되었는데 비해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의 통화가치는 각기 8.0%, 28.1% 및 34.6%씩 切下된 바 있다.

그러나 同期間中 餘他國들, 그중에서도 특히 工業製品分野에서 경쟁관계가 증대되고 있

〈表 8〉 主要新興工業國通貨의 對美달러 變動率  
(1970~1978)

(%)

國 家	韓 國	대 만	홍 콩	싱 가 포 르	브 라 질	멕 시 코	(日 本)
變動率	-35.7	8.0	28.1	34.6	-75.1	-45.1	(71.0)

資料：日本 通産省, 『通商白書』(總論), 1979, p. 98.

는 日本圓貨의 對美달러가치가 71%나 切上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이들 新興工業國들이 餘他國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競爭的인 換率(competitive exchange rate)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종합적인 對外指向的 發展戰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新興工業國들의 對外指向的 經濟發展戰略이 그 나름대로 성공하게 된 때에는 이미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低廉한 良質의 勞動力, 活動的인 企業家群 및 社會的 安定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세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良質의 勞動力이 비교적 低廉한 가격으로 동원될 수 있었다는 점은 新興工業國들의 발전전략이 기반을 굳혀 나아가기 시작한 초기단계에서는 이들 국가의 工業製品의 對外競爭力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못지 않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外國人直接投資導入의 핵심적 誘因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表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2년~1977년의 기간 중 韓國과 대만의 製造業部門에서의 月平均賃金は 日本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및 멕시코 등의 경우는 日本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바 있다.

社會的 諸般要因들이 경제성장에 有利하게 작용하게 된 측면 또한 결코 過少評價되어서는

〈表 9〉 主要新興工業國들의 賃金水準推移

		1 9 7 2	1 9 7 7
日	本	100	100
韓	國	16	19
대	만	18	19
홍	콩	27	22
싱	가 포 르	24	21
브	라 질	46	43
멕	시 코	54	33

資料：日本 通産省, 『通商白書』(總論), 1979, p. 94.

안될 것이다.

다음 <表 10>은 소위 中所得國들을 대상으로 7個의 「社會的 指標」가 각국의 경제성장에 有利하게 작용한 程度를 4개의 等級으로 나타내고 있다.

<表 10>

國名	指標	전통적인 생산部門 규모	二重性 의 정도	都市化 의 정도	도 작 적 인 의 모 중 층	社 會 的 의 도 의 정	讀 解 力 의 도	大 衆 通 信 의 정 도	綜 合 點 數
브 라 질		B	B	B	B	A	B	B	2.1
콜 럼 비 아		B	B	A	B	A	B	B	2.3
이 란		C	C	C	B	B	D	B	1.3
아이보리·코스트		C	B	D	C	C	D	D	0.7
케 나		C	B	D	D	C	C	C	0.9
韓 國		C	B	B	B	A	A	A	2.3
멕 시 코		B	B	A	A	A	B	A	2.6
나 이 지 리 아		C	B	D	B	B	D	D	1.0
파 키 스 탄		C	B	D	B	C	D	D	0.7
필 리 핀		B	B	A	B	A	A	C	2.3
대 만		B	A	B	A	A	B	B	2.4
태 국		C	B	C	C	B	A	C	1.7
터 키		B	B	B	B	A	B	B	2.1
베 네 주 엘 라		A	B	A	A	A	B	A	2.7
平 均 點 數		1.6	2.0	1.6	1.9	2.4	1.6	1.6	1.8

資料 : I. Adelman and C.T.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 Quantitative Approach* (The Johns Hopkins Press, 1967); L.G. Reynolds, *Image and Reality in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 Press, 1977), p.259에서 再引用.

註 : A=4(경제성장에 가장 有利하게 작용)

B=3

C=1

D=0(경제성장에 가장 有利하지 않게 작용)

<表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브라질, 멕시코, 韓國 및 대만 등 新興工業國들의 綜合點數는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分析方法이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新興工業國들의 경우 社會的 諸般要因들이 경제발전에 有利하게 작용하여 왔음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한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新興工業國의 當面課題와 問題點

新興工業國들의 當面課題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추진된 對外指向的 發展戰略의 각종 부작용들을 効果적으로 제거·극복함으로써 경제발전의 持續化를 도모하는 데 있다.

오늘날 新興工業國으로 分類되고 있는 開發途上國들은 歷史的인 成長類型面에서 開發途上國의 최종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이들 新興工業國들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나 기존정책의 계속적인 推進만에 의해 先進國으로 轉換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들 국가가 直面하고 있는 각종 構造的 矛盾과 不安要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新興工業國들이 當面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과제는 다시 다음과 같은 主要內容으로 具體化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상호간에 깊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 ① 偏重된 産業의 調整.
- ② 二次産業部門의 附加價值提高 및 國內基盤擴充.
- ③ 經常收支와 對外負債管理의 改善.
- ④ 獨自의 技術과 商品開發能力의 提高.

對外指向의 發展戰略이 갖게 되는 潛在的 危險性은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를 등한시하는 반면 直接的으로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投資를 過大強調하며 농업생산과 농촌사회의 발전에 비해 공업부문과 都市社會의 발전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不均衡의 成長을 유발하게 될 위험성인 것이다.

이와 같은 潛在的 危險性은 처음부터 農業基盤이 전혀 없는 홍콩 및 싱가포르의 경우와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新興工業國으로 지칭되고 있는 대만을 제외한 餘他新興工業國들에서 (비록 정도의 差異는 있을지라도) 顯在化되고 있다.<sup>(8)</sup>

특히 농업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현상은 西歐의 4個國을 포함한 10個 新興工業國의 식량 및 농산물원료의 輸入이 全世界의 식량 및 농산물 輸入總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963년의 6.9% 및 8.2%에서 1976년의 8.4% 및 14.4%로 각기 증대된 점으로 충분히 反映되고 있다.<sup>(9)</sup>

(7) 이들은 Fei-Paauw의 3단계분류 중 제 3 단계인 「輸出代替」(export substitution)의 단계에, 또한 Chenery-Syrquin의 4단계분류 중 제 4 단계인 「工業特化」(industry specialization)의 단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Paauw, D., and Fei, J.C.H., *The Transition in Open Dualistic Economies* (Yale Univ. Press, 1973); Chenery, H., and Syrquin, M., *Patterns of Development, 1950~1970* (Oxford Univ. Press, 1973).

(8) 韓國, 브라질 및 멕시코의 경우 대만에 비해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상대적 過少投資와 그에 따른 국민경제의 不安要因分析은 Samuel, P.S.Ho, *Economic Development of Taiwan, 1860~1970*, Yale Univ. Press, 1978 및 Lloyd G. Reynolds, *Image and Reality in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 Press, 1977, ch. 14 참조.

(9) 同期間 중 10個國의 燃料의 輸入比重은 6.7%로부터 9.6%로 증대되었음(資料: OECD보고서, 1979, p. 54).

오늘날 韓國을 비롯한 新興工業國들의 成長潛在力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工業化過程에서 초래된 産業의 偏重化現象, 특히 內需部門과 輸出部門의 심각한 不均衡現象에 의해 크게 잠식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좀더 均衡成長의인 方向으로 産業構造가 調整되어야 할 필요성을 示唆하는 것이다.

新興工業國들의 輸出部門인 二次産業部門의 當面課題는 이 部門의 附加價値率이 수출의 증대속도와는 달리 매우 낮은 수준에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美國의 二次産業部門이 갖는 附加價値率 90.7%(1974년)에 비해 6개 新興工業國들의 二次産業部門은 평균 35% 정도에 불과한 附加價値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들 국가가 주로 最終加工段階에서의 特化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며, 이는 다시 中間財輸入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그에 따른 二次産業部門의 수직적 統合(vertical integration)의 결여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상 新興工業國들의 工業製品 생산증가율은 각종 原資材輸入의 높은 증가율을 유발하여 1963~1976년 기간 중 이들 兩者間의 比率은 年平均 1 대 0.7을 上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輸出增大戰略」이 반드시 「輸出을 통한 成長戰略」과 一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示唆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0)</sup> 따라서 오늘날 新興工業國들이 당면한 핵심적 과제의 하나는 수출주도산업인 二次産業部門의 附加價値率을 증대시킬 수 있는 諸方案의 강구인 것이다.

新興工業國들은 輸出主導型 경제 발전 전략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經常收支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예컨대 1960~1963년 간에는 年平均 9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6개 新興工業國들의 經常收支赤字는 1976년에 100억 달러 선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이들 국가의 증대되는 對外負債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新興工業國들이 獨自的 技術에 의해 새로운 商品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은 저렴한 良質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수출경쟁력이 점차 限界에 도달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賃金率의 급격한 상승추세하에서 技能 및 技術集約的(skill and technology intensive) 商品開發을 통해 새로운 比較優位性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인 것이다. 예컨대, 1963~1970년 기간 중 實效換率에 의해 조정된 제조업부문의 年平均 賃金率 증가율은 브라질 -5.2%, 한국 0.9%, 대만 7.9%이었으나 1973~1976년 기간 중에는 각기 13.6%, 10.1% 및 19.1%로 증대되어 同期間 중 주요 OECD 국가들의 年平均 증가율 9.8%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따라서 新興工業國들이 그동안 실시해 온 自國通貨의 平價切下政策

(10) 輸出主導成長과 輸出增大(growth of exports versus export-led growth)의 차이점과 이의 정책적 示唆點은 예컨대 Hans W. Singer, *Development Prospects of NICs in a Changing World*, KIEI, Sept. 1978, pp. 9-11 참조.



은 이들 국가의 제조업부문에서의 賃金率上昇을 상쇄하기에 不充分한 것이었으며, 일반적으로 先進國의 賃金率上昇을 능가하는 높은 賃金率의 上昇趨勢를 견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對外指向의 발전전략의 추구는 결국 새로운 次元에서의 比較優位性開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IV. 新興工業國으로서의 韓國經濟

韓國經濟는 전형적인 新興工業國으로 지칭되어 왔다. 이는 곧 韓國經濟가 對外指向의 發展戰略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룩한 경우로 지칭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韓國經濟가 當面한 課題는 이상에서 고찰된 諸般內容으로부터 결코 例外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오늘날 新興工業國들의 當面課題는 곧 韓國經濟의 當面課題임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경제가 實際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示唆點의 하나는 韓國經濟가 向後에 있어서도 기존전략인 對外指向의 또는 輸出主導型 發展戰略을 계속 추구하려는 한 이의 成功程度는 이들 當面課題를 餘他新興工業國들에 비해 어느 정도로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또한 신속히 해결해 나아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向後의 對外指向의 發展戰略의 구체적 내용이 그동안의 내용과는 質的으로 相異한 것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며, 특히「輸出主導型 經濟發展戰略」이 단순한「輸出指向의 戰略」으로 전략하고 말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發展戰略이 되도록 諸般補完戰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輸出產業의 國內基盤擴充 및 輸出產業의 附加價値率提高 또는 輸出의 외화가득율증대를 위한 보완전략은 向後에 해결되어야 할 가장 핵심적 과제인 것이며, 새로운 比較優位性開發을 위한 기술개발 또는 상품개발능력의 증대는 餘他新興工業國들과의 경쟁 및 新興工業國이라는 위치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先進國의 輸入制限障壁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궁극적 수단인 것이다.

對外指向의 發展戰略이란 輸出可能商品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며, 輸出活動의 持續化는 正確한 社會的 費用을 감안한 輸出活動의 效率化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과연 어떠한 商品을 수출할 것인가」인 것이며,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戰略的 考慮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比較優位性的의 動態化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適正한 動態化인

것이어야 하며 動態的 比較優位性概念에 지나치게 현혹된 수출산업정책은 오히려 效率的인 輸出主導型 經濟發展戰略의 수행을 저해하게 되고 말 것이다. 사실상 우리경제의 가장 심각한 難題의 하나인 「重化學工業部門의 再調整」이란 과제는 動態的 比較優位性概念에 지나치게 현혹된 수출산업정책이 낳은 副產物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比較優位性의 決定要因은 產業別로 相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획일적인 比較優位性開發政策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動態的 側面에서 강조되고 있는 製品의 「사이클」內容은 產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사이클」品目과 非「사이클」品目を 엄격히 구별한 수출산업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며, 規模의 經濟性이 比較優位의 主決定要因인 경우에는 國內需要의 潛在的 규모가 주는 制約性이 事前的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출정책은 가능한 한 品目과 市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어야 하며 品目과 市場을 각기 相異한 次元에서 다루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특히 각종 政策建議를 목적으로 한 研究分析過程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後發開發途上國市場을 상대로 한 새로운 耐久消費財(技術集約的 製品 포함)開發보다는 先進國의 低所得層을 상대로 한 製品開發이 선진국시장은 물론 후진국시장에 침투하는데 있어 보다 戰略的일 수 있다.

다섯째, 製品의 差別化의 餘地가 많은 產業일수록 主要先進國들과의 產業內貿易(intra-industry trade)을 증대시킴으로써 競爭的인 產業構造下에서의 補完的 分業化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입억제정책의 유발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00% 國產化政策이나 水平分業強調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더욱 戰略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產業內特化(intra-industry specialization)는 產業別로 特定先進國과 깊은 유대관계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보다 效率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補完戰略의 필요성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바 있으므로 결코 새로운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나 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현재는 물론 向後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인 것이다.